



교섭속보

8호

2018년 9월 4일 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욱

신뢰교섭, 소통교섭의 결과가 이거였나!

〈9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안〉

▲ 임금 : 2.2% + 상여금 50% 인상

▲ 인력 및 단협 : 국경일(제헌절) 삭제, 식비 2천원 인상을
전제 조건으로 일부 수용 가능

9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안 임금 2.2% 제시.

사측, 단협 사항 중 국경일(제헌절) 삭제, 식비 2천원 인상을 조건
으로 인력 및 단협 논의 가능하다.

결국 노사 교섭 최종 결렬!

바로 어제인 9월 3일(월) 오전 10부터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가 사측의 개악안 등장으로 인해 끝내 결렬됐다.

처음 조정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임금 2.2% 인상 및 상여금 50%인
상을 기본으로 인력과 단협 사항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돌연 조정위원에게 단협 중 국경일(제헌절)을 삭제
할 것과 식비 2천원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개악안을 들고 나왔
다. 그러면서 사측의 요구안을 받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되던 사항들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단
협을 개악하고 복지 조건을 후퇴시키면 임금과 인력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란 말인가! 이는 제안이 아니라 후안무치한 협박
과 다름없다!

한편, 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태도 또한 노동조합측 위원들에게 공
분을 사기에 이르렀다. 사측에서 노동조합에 불리한 요구안을 들
이밀며 협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중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측의 요구를 거들기까지 했다. 더 이상, 중노위에서 교
섭을 진행할 수 없어 우리지부는 결국 조정안을 거부했다.

▲ 총액 3.1(임금 2.2% 인상 + 상여금 50% (0.9%))인상

의료원은 실무교섭을 통해 노측 요구안인 7.1%는 수용불가 입장
밝혔으며 공무원 임금 인상률 수준인 2.6%를 제시하면서 교섭을
끌어왔다. 그런데 조정안은 그 보다도 더 후퇴한 2.2%인 것이다.
인하대병원은 성과금 포함 총액 6.4%, 서울아산병원은 총액4.8%
(임금 2.6% + 상여금 50%(2.2%))에 타결했다.

1조 클럽에 들었고, 수익이 890억이 났다며 신문에 대서특필된 고
대의료원의 임금인상률이 2.2%가 말이 되는가!

특히나 상여금 50% 인상과 관련한 요구안은

바로 '최저임금법 탈출'을 위한 의료원의 방법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 병원 신규 직원(일반직 6호봉,
일반업무직 11호봉)의 대다수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 현재 의
료원은 벌금을 물거나 위반이 되기 전 개인에게 조정 수당을 지급
하고 있다.

우리 급여 체계로는 매년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상여금을
50%가량 올려 1050%를 12개월로 나누면 법에 걸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의료원은 1, 2, 3, 4, 5, 7, 8, 9, 10, 11월은 상여금 90%
를 지급하고 6월 12월은 75%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 인력충원 15명 + 비정규직 정규직화 15명 + 중환자실 간호 1등

급 상황, ▲ 단체협약 요구안

사측 개악안 수용해야 노측 요구안 수용하겠다!

우리지부가 실무교섭을 통해 인력 및 비정규직 요구안을 조율하던 과정에서 나온 명수는 인력 총원 15명, 비정규직 정규직화 15명, 중환자실의 간호 1등급 상향 인력 65명으로 총 95명이다. 사측은 개악안을 받아야 논의된 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분과 인력에 포함시키려 하는 의료원

중환자실 1등급 상향은 의료원 진행해야 할 정책이다!

1등급 상향에 드는 인건비(65명 약 26억)와 1등급상향으로 인해 얻는 수가 이익(병상수 * 1등급간호관리료 인상분 62억)을 따져봤을 때 그 차이는 40억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의료원 스스로가 1등급 상향을 위한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의료원의 이익이 되는 지점을 충분히 계산해 요구안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료원은 노동조합이 단협 때문에 인력충원을 거부했다고 하는 뱃을 씌우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단협 요구안 중 논의 중이던 안은 ▲ 상근근무자 휴게시간 12시간 보장 ▲ 병가 매년 2개월 상향 ▲ 자녀학비보조금 대학생 자녀 1인에서 2인으로 확대 안이다.

하지만 상근근무자에 대한 요구안은 이미 근로기준법상으로 11시간을 보장받기로 한 법정 사항에 1시간을 추가한 것이다. 병가 또한 원래 매 년 2개월을 부여하던 관계를 깨고 의료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평생 2개월을 갖다 붙여 직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자녀학비 보조금에 대해서도 기존에 받았던 사람이 있었고 의료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생겨나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를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원이 삭제를 요구한 제현절 수당은 이제 막 1회를 받았을 뿐이고, 식비의 경우 인상하게 되면 약 25일 기준으로 매달 5만원가량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임금인상액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를 수용할 경우 임금인상은 무색해지는 것이다. 의료원은 유급 휴일 수당을 줄이고, 식비 인상을 요구하며 교섭을 통해 의료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직원들에게 전가시키고 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2달간 노사가 쌓아 올린 신뢰의 교섭, 소통의 교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모두 얻기였는가.

7월부터 시작된 노사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은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교섭에서 전근대적인 노사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신뢰를 주기 위해 노사 논의하는 자리 허심탄회 하게 요구안을 이야기하며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교섭 자리에서 노사 대표위원 모두가 자율 타결을 위해 힘써 보자고 말했다.

노재옥 지부장은 마지막 본교섭에서 ‘앞으로 허리띠를 졸라 댄 것을 직원들도 이해할 것이다. 그러니 올 해 수익을 나누어 직원들에게 보답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직원들이 병원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해하기 때문에 병원을 더 생각하는 마음에서 병원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겠다고 그러기 위해 올 해 한번은 투자해 달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조정회의에서 노사 실무교섭에서 조율된 사항들을 깡그리 없애고, 임금 안을 축소하고, 개악 안을 제출하는 것이란 말인가!

의료원은 노사가 마지막 괴로운 선택을 하기 전

직원들을 위해 큰 결단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처우가 생긴다면 어떤 투쟁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것이 노사 관계를 막장으로 치닫게 하는 투쟁이라도 조합원을 권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와 있다. 더 이상 직원들의 신뢰와 믿음에 금이 가지 않도록 의료원이 결단해야 한다.

1. 9월 4일 파업전야제 참가 공지

안암병원 조합원들은 오후 6시까지 3층 로비로 집결합니다.

구로 안산병원 조합원들은 각 병원별 배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안암병원으로 집결합니다.

파업전야제는 7시를 기해 본대회를 시작합니다.

2. 9월 5일 파업 참가 공지

파업은 9월 5일 오전 5시를 기해 안암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업 참가자는 노동조합에서 파업 번표를 통해 의료원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 대의원과 논의 후 파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